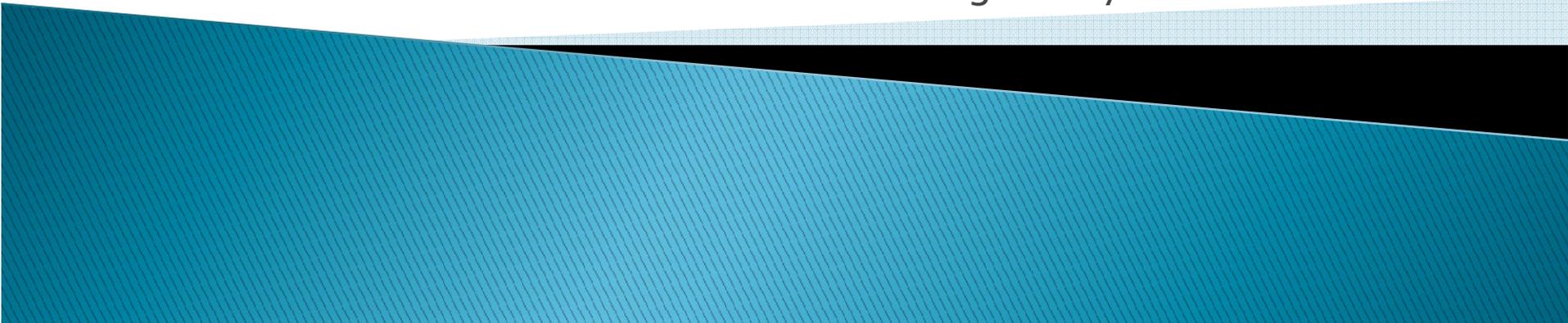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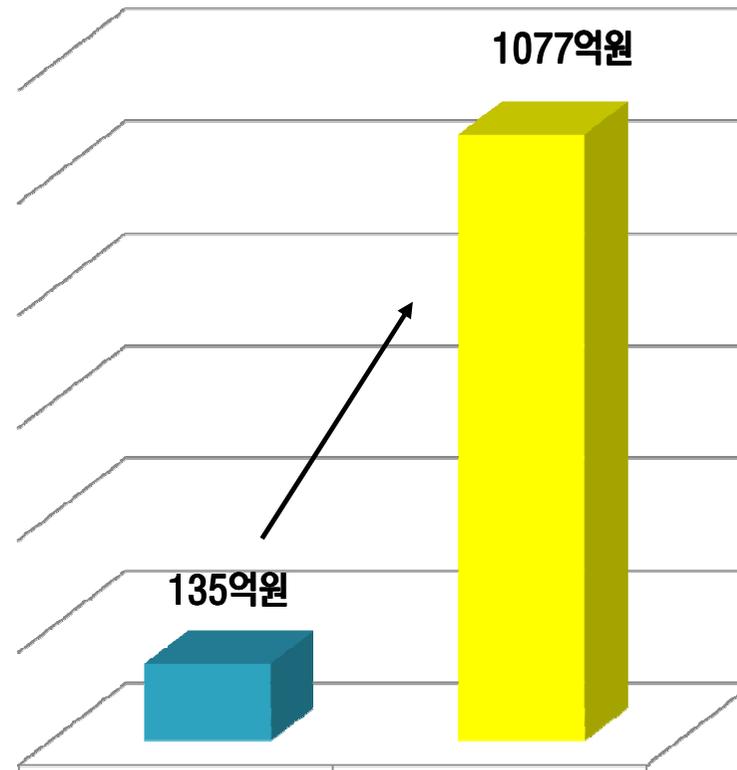
KBS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보호현황과 합법유통 확대를 위한 제안

KBS 글로벌전략센터 지적재산권부
조지훈

legendary-cho@kb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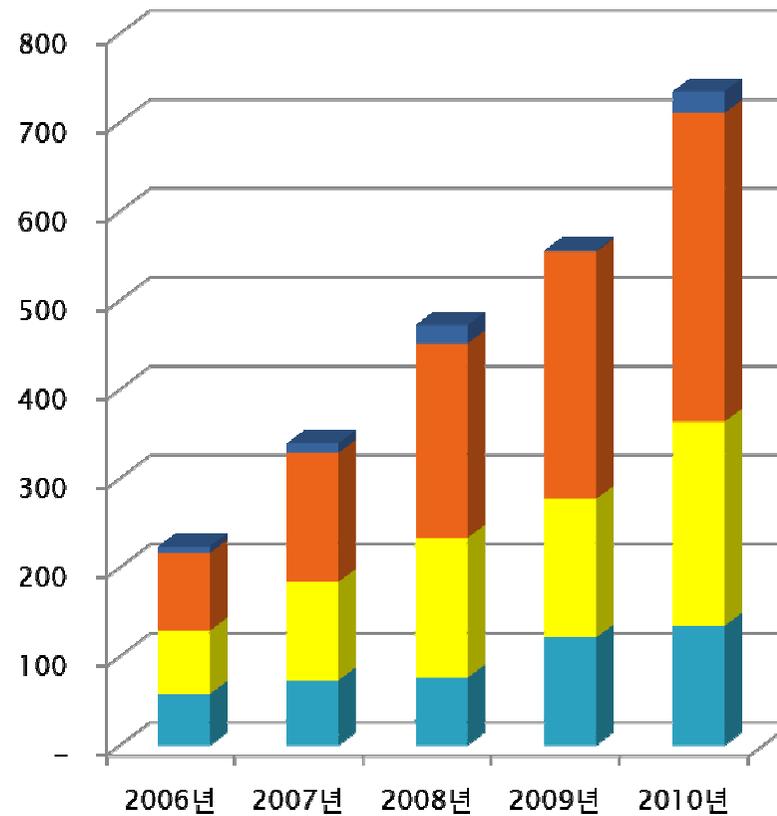
A decorative graphic at the bottom of the slide, featuring a blue area with a fine, diagonal line pattern on the left, transitioning into a solid black area on the right.

KBS의 **희망** “콘텐츠 유통수익”



- 7년간 총매출 정체 : 1조2,300억원(2003년)→1조3,800억원(2010년)
- 광고시장 포화 : NHN(1조1천억원) > KBS(5,800억원)+SBS(5,000억원)
- 콘텐츠유통 및 저작권 수입만 800% 증가!!(135억원→1,07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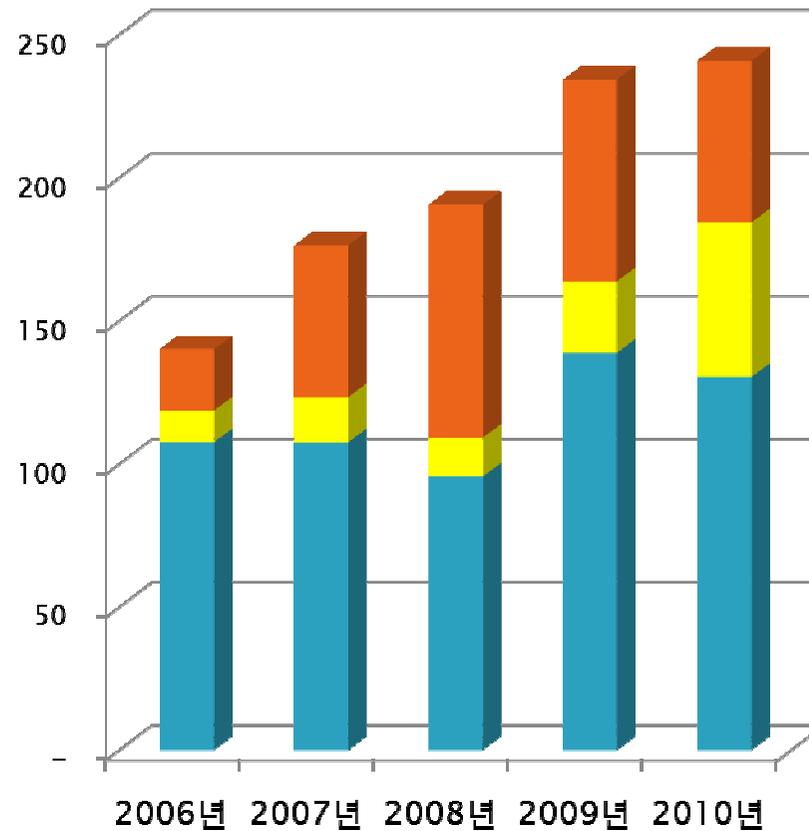
연도별 KBS 콘텐츠 유통수익변화 - 국내



■ KBS월드 협찬 등
 ■ KBS N 채널 광고
 ■ 국내 온라인 유통
 ■ 국내 케이블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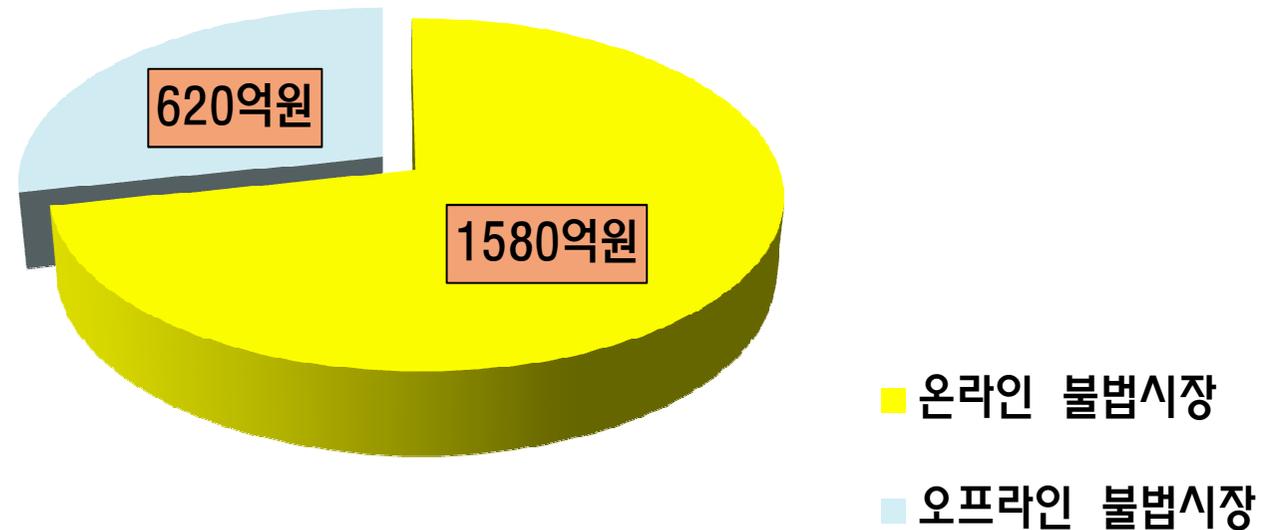
연도별 KBS 콘텐츠 유통수익 변화- 해외



■ KBS월드 수신료/ 광고료 등
 ■ 해외 온라인 유통
 ■ 해외 판권 유통 (오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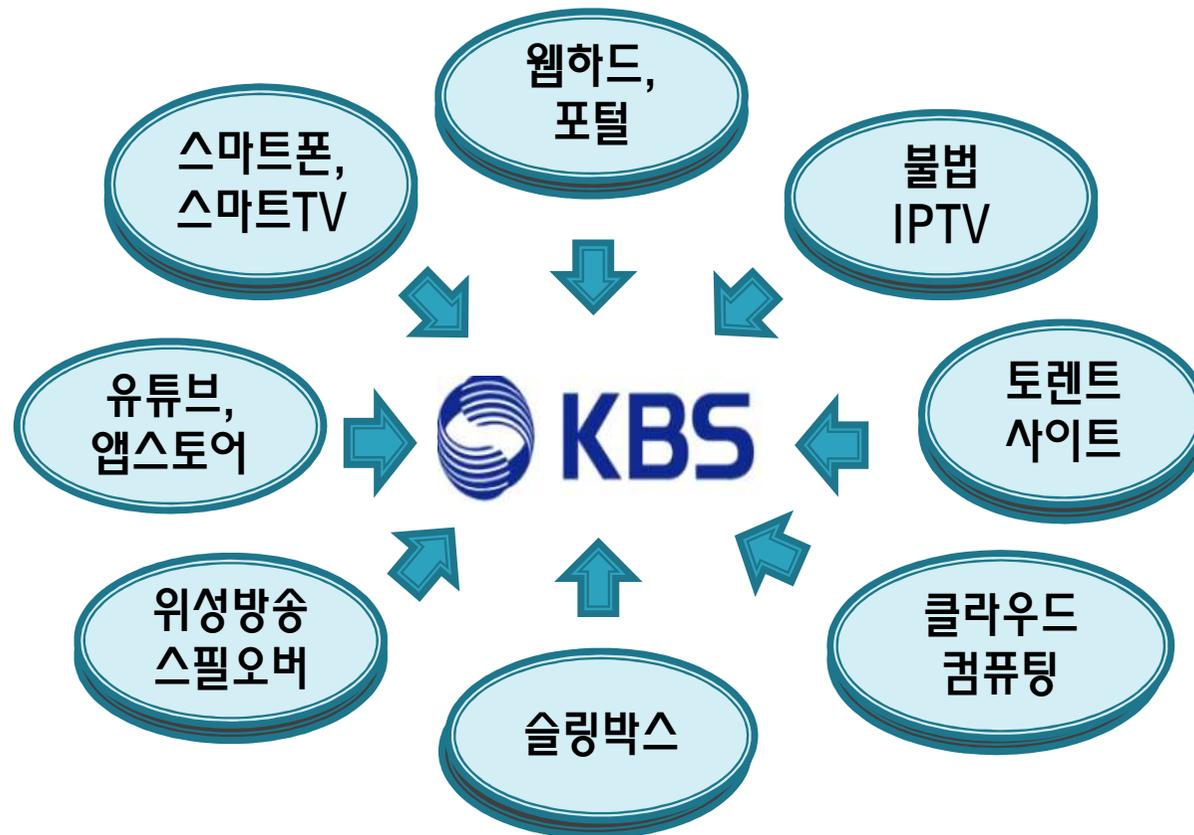
방송저작물 불법시장 규모 - 국내



*저작권보호센터 2010저작권연차보고서 기준

- 연간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건수는 1억9,500만 건
합법유통 가정 시 국내 온라인 상 방송저작물 침해규모는 1,580억 원
- 저작권 보호는 수입 측면 외에도 고품격 콘텐츠 통제력 유지를 통한
KBS의 공적 영향력 확대에 직결(예 : Korea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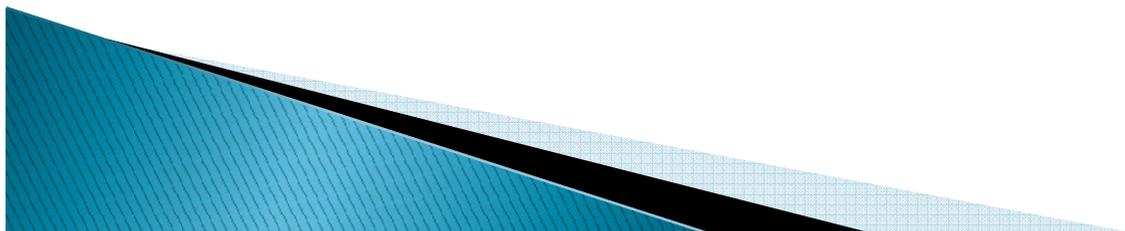
뉴미디어 시대 본격도래, 사면초가 KBS



웹하드, 포털사 저작권 침해대응 경과 - 국내

◆ 주요경과

- 2006.10 : 방송3사 + 인터넷계열3사, 65개 회사(포털, 웹하드, P2P)에 불법저작물 삭제 및 손해배상 요구
- 2007. 5 : 주요5개 온라인사업자와 협상 개시
- **2007. 9 : 주요 포털업체와 합법 합의**
- 2008. 5 : 방송사 → 일부 OSP 형사고소
- 2008.10 : 방송사+인터넷계열3사, 방송사 협상단 구성
- 2008.11~2009.8 : 주요OSP 및 DCNA(Digital Contents Network Association)와 11차례 공식협상 진행
- **2009.8 : 56개 OSP와 사업 합법화 합의**
- 2009.10 : 일부 OPS 형사처벌(벌금형)
- **2010.10 : 주요 포털사와 이미지저작물 등 관련 분쟁 후 다시 배상+합의**
- **2011.9 : 총 120여 개 OSP와 사업합법화 합의**



1 단계 : 프로세스 도입 단계 - 국내

- ◆ 대상 : 주요 포털사
- ◆ 합의 : 2007-2008년
- ◆ 주요합의 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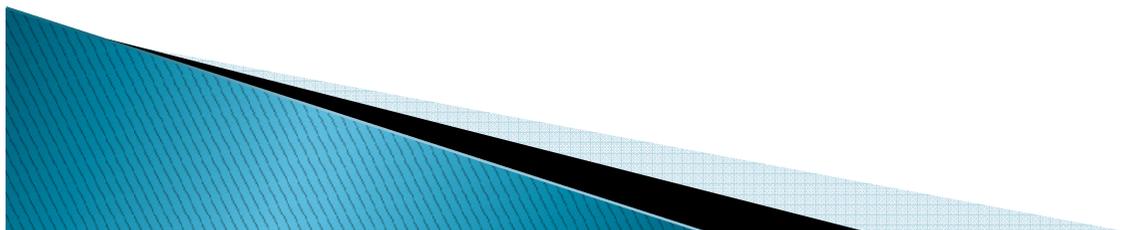
1. 저작권침해 인정 + 과거 침해배상

2. 저작권관리 프로세스 최초도입

- 불법 콘텐츠의 제거 및 통보
- 모니터링 조직 및 인력 등 운영(365일/24시간)
- 상습적 침해자 및 불법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조치
- "저작권보호 캠페인" 진행
- 계약불이행 시 책임 등
- * 합의 주요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수준으로만 공개(계약상 비밀준수 의무에 따라)

- ◆ **이미지저작물 관련 분쟁 : 2010년**

- 주요 포털사와 저작권 합의 갱신 및 관리책임 명확화
- 저작권 침해배상 및 관리책임범위 확대 합의 도출



2단계 : 합법유통 단계 - 국내

- ◆ 합의대상 : 특수한 유형의 OSP(2009-2011년)
- ◆ 주요합의 골자
 1. 기 저작권 침해 인정 + 손해배상
 2. 의무적 저작권 보호조치
 - 불법 콘텐츠 제거/ 의무적인 필터링시스템 도입
 - 모니터링 조직 및 인력운영(365일/24시간)
 - 의무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 콘텐츠 관리 결과 통보
 - 상습적 침해자 및 불법게시판 운영진에 대한 조치 등
 3. 합법유통 합의(방송사 저작권부서 → 유통부서 업무이관)
 - 현재 약 120개 OSP사와 합법유통 합의에 따른 콘텐츠 공급
한국내 특수한 유형의 OSP는 약 240~250개 정도로 추정
 - KBS미디어 인터넷 매출 : 2008년 350억원 → 2010년 570억원
- ◆ 방송사업자와 OSP와의 합법적 유통 합의는...방송콘텐츠의 건전한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자로 전락될 수 있는 수많은 방송콘텐츠 사용자들을 합법영역으로 유도하도록 기능함(2009 국회 문방위)

3단계 : 지속적 관리단계 - 국내(1)

◆ 온라인 콘텐츠 유통현실과 문제점

1. 미미한 합법콘텐츠 유통

- 합법콘텐츠 유통매출은 아직 본 궤도에 이르지 못함
- 현재 웹하드의 경우 약 30% 정도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합법계약 유지 관리의 어려움

- 업체간 영업양수, 회원이관을 통한 합의이행 책임 회피 시도
- OSP사업은 진입탈퇴가 자유롭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이라 불법근절 어려움
- 개별 저작권자의 노력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 감시는 원천불가

3. 진화하는 저작권침해 양상

- 합법유통 사이트에서 불법, 합법 콘텐츠 공존
- 필터링 시스템 가동을 조작
- 불법콘텐츠를 제휴콘텐츠로 허위 표시해 매출 누락
- 합법콘텐츠 등록 전 시차를 이용한 과금 누락
- 폐쇄 공유형 대용량 저장공간을 통한 불법유통
- 레드오션 웹하드, 뜨는 토렌트사이트(풍선효과)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불법 시청(I-PHONE)

3단계 : 지속적 관리단계 - 국내(2)



KBS NEWS 검색

방송다시보기 | 뉴스 | 스포츠 | 24시간 뉴스 | VOD스페셜 | 재테크 | 건강생활 | 연예문화 | 기상재해

전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정보과학 | 포토 | 기자칼럼 | 앵커룸 | HOT 이슈

KBS HOME > 뉴스 > 사회

국내 최대 웹하드서 불법물 무차별 '업로드'

국내 최대 규모 웹하드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업주가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업로드 전문회사와 웹하드 사이트 2곳의 실제 업주 양모 씨와 업로드 회사 버지사장 유모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7월 업로드 전문업체를 만들어 유 씨와 4-5명의 직원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를 통해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연 4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서버 기록에서만 최소 5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제보 >
뉴스 레터 >
지구촌 뉴스
시사기획 KBS 10
미디어 비평
남북의 창

◆ 웹하드 수사결과 (2011.8.8)

1. 2009.7 웹하드사가 업로드 전문업체 설립
 - 4~5명 고용 후 불법저작물 유통
 - 최소5만여건 유통으로 연400억대 불법수익
 - 토렌트방식 고화질 콘텐츠 수집
2. 저작권자 매출 고의누락
 - 22개 저작권자 152억원 누락
 - 집중적 매출이 이뤄지는 시간대 필터링시스템 조작
3. 시사점 → 근원적인 필터링 조작 방지책 도입 필요

3단계 : 지속적 관리단계 - 국내(3)



[김영리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 25개를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토렌트 사이트(디지털 파일을 분산해 저장·공유하는 방식)를 이용한 불법 복제물 공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1월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웹하드 P2P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저작권 침해 25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개인들 간(Peer To Peer)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토렌트를 이용하면 네티즌들이 하나의 파일을 내려받을 때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 다운로드 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법복제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들은 불법 저작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씨앗파일(Seed) 대신 고요르 조 모저오르 오여디그 이는 나이프드이다

◆ 토렌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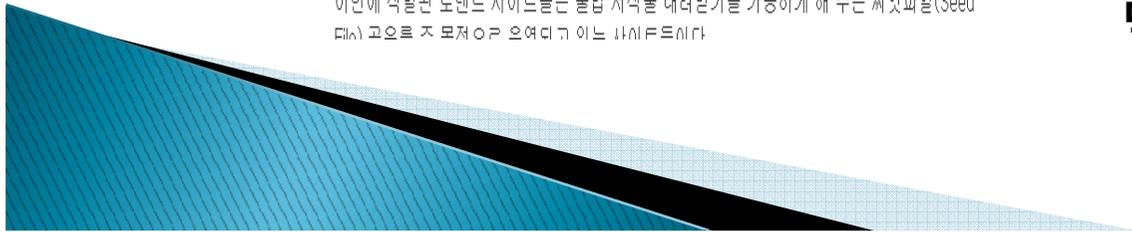
1. 2011.4월 KBS 등, 내용증명 발송

- 주요 토렌트사이트 16개 대상
- 침해물삭제, 폐쇄조치 이뤄짐
- 불법복제가 가능하도록 이용자 상호 간 시드파일을 내려받는 변형된 P2P 방식으로 과거와 달리 속도 빠르고 이용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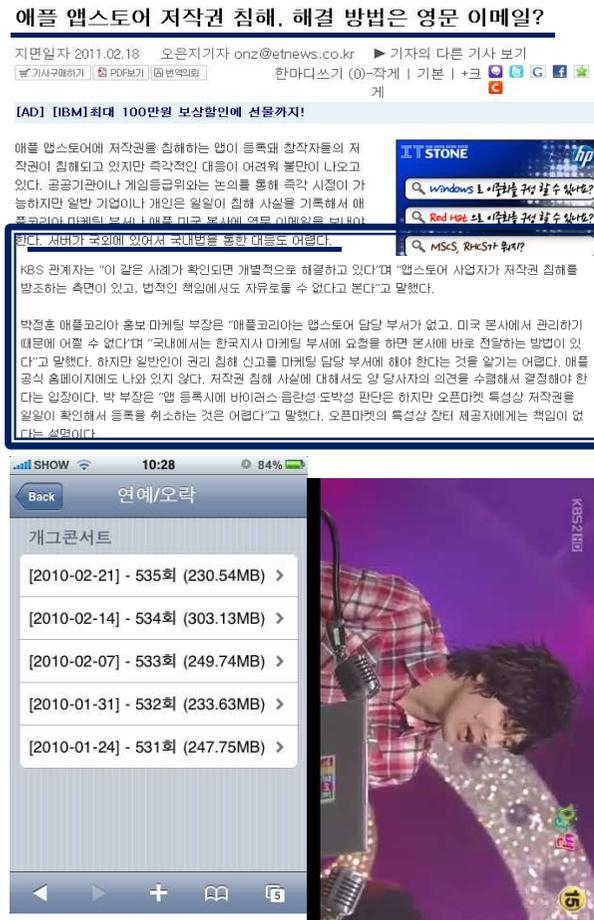
2. 2011.5월, 7월 문화부 1,2차 단속

- 67개(5월), 25개(7월)

3. 시사점 → 제2의 웹하드화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



3단계 : 지속적 관리단계 – 국내(4)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 2011.4월 KBS 등 방송사, 애플코리아에 내용증명 발송

- I TUNES 어플리케이션 중 라이브TV박스, 라이브텔레비전 등 5~6개 어플리케이션 방송물 불법시청 제공
- 애플은 이 수익 중 30% 가져감
- 침해신고, 대응 원활치 않음

2. 시사점 → 오픈마켓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필요

KBS의 저작권 침해대응 - 해외(미주)

◆ 미주 지역 불법유통 극심 → 합법유통 고사

1. 웹하드(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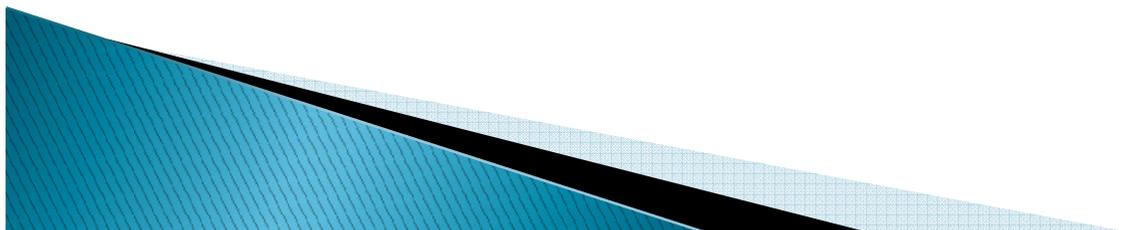
- 북미주에만 25개 이상 사이트 성행(한국 본방송 후 5시간 이내 업로드)
- 유료 종량제, 월정액(15~20불 내외)/ 사이트당 가입자 5만~30만명
- OOOOdisk/ OOOdisk / olpemi / jiruhe 등

2. 커뮤니티(스트리밍)

- 커뮤니티 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무료제공(수익기반은 광고)
- 회원 간의 링크 및 정보공유(약 30만명 이상의 회원 공유)
- Youtube/ Youku/ Myspace/ Megavideo 등

3. 불법 IPTV

- 한국의 거의 모든 방송을 실시간 IPTV로 무단전송 서비스
- 셋탑박스 제공 및 월 정액서비스 : 한국 모든 방송 실시간 시청
- BaroTV/ Buymytv/ Oknet



KBS의 저작권 침해대응 - 해외(미주)

◆ 현지 저작권 침해대응 노력 그리고 한계

1. 미국 내 가치분, 손해배상청구 소송

- IP망을 통해 셋탑박스를 이용해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OOTV)
- 2009, 2010년 KBS+MBC 현지법인 공동으로 美연방법원에 긴급 가치분명령, 민사소송 모두 승소(소송비용만 25만 달러)
- 사업자는 2010년 파산신청+ 캐나다 도주 후 다시 유사사업 개시
- 결국 한국 내에서 다시 가치분소송 제기해 승소 후 중앙지검에 형사고소

2. 캐나다 현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 MYTV와 유사형태의 불법 IPTV로 가입비, 온라인 광고 등 막대한 불법수익
- 2009년 한국방송3사의 현지법인+ALL-TV(현지 지역방송) 공동으로 민사소송 제기
- 피소 후 또 다른 유사서비스인 "OOOOTV"로 회원 대거 이동

3. 미국 내 불법 웹하드 수사의회, 손해배상청구 소송

- 불법다운로드 서비스로 막대한 불법수익 창출
- 현지 방송3사 공동으로 ICE(이민세관국) 온라인 저작권단속팀에 제보
- 미국 법원은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 중단
- 결국 한국 내에서 2011.9월 다시 고소 / 미국 수사기관 - 한국 경찰청 공동수사

KBS의 저작권 침해대응 - 해외(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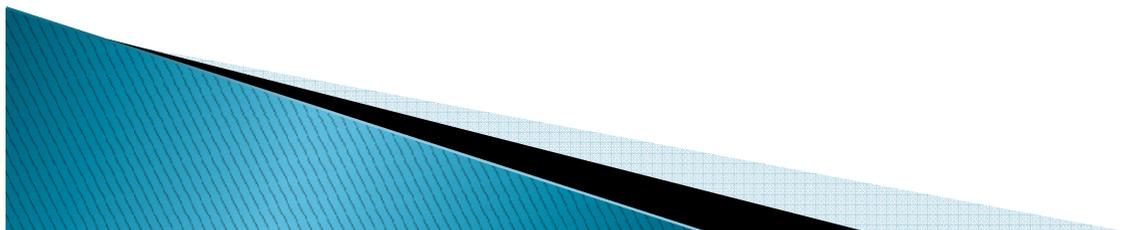
◆ 저작권 침해대응 현황

1. 저작권 침해 양상

- 2007년 이후 월드TV, GTV, 아고라TV, YesTV 등 불법 IPTV가 기승을 부림
- 유료 차등 정액제 회원가입 방식으로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병행
- 관서지역 등의 경우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에 의한 피해로 합법유통시장 궤멸

2. 일본 현지 불법 IPTV 저작권침해 대응

- 2007년 방송3사, G&G 불법사업자 저작권침해 고소(동경 경시청) → 수사미진
- 2007년 12월, KBS명의로 12개 불법사업자에 대해 경고공문 발송
- 2010년 KBS, SBS 공동 현지법원에 가처분 신청 → 재판부 조정 수용(불법 중단)
- 2011년 2월, 불법사업자 GTV를 타인에 매각하고 잠적
- 2011년 2월, GTV 불법서비스 재개 → KBS, SBS 재소송 제기



KBS의 저작권 침해대응 - 해외(중국)

◆ 대응사례

1. 한국 합의사례, 중국 OSP에 적용

- 2009년 이후 주요 OSP(포털)에 대해 행정단속, 형사고소, 배상협상 병행
- 중국 주요 포털사와 침해배상+ 관리프로세스+콘텐츠 합법 유통 합의
- KBS + 현지법률사무소 +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공조의 결실
- 합법유통으로 전환되어 KBS저작권보호 및 항구적 수익원 창출

2. 주요합의내용

- 배상실적 : 2009년 8천 만원 → 2010년 8억원 → 2011년 10억원 대
- 합법유통 : 2008년 3억7천 만원 → 2009년 5억원 → 2010년 36억원
2011년 55여 억원
- 지속적 저작권 침해단속 결과 KBS콘텐츠 유통단가 상승 및 현지 OSP 간 견제로
매우 짧은 기간에 합법유통 시장이 10배~15배로 급성장

3. 향후과제

-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 중국 판권보호중심(2011년 MOU체결)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2011년 재위임), 현지 법률사무소(특별 모니터링, 공증)
- 위성방송 불법단속, 불법 IPTV단속 시급



합법 콘텐츠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저작권자(방송, 영화, 음악, 출판 등)

1. 불법저작물 유통방조에 대한 계약상 책임 요구

- 현행 과태료(행정벌) 수준으로는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어려움
사업자는 불법이익이 더 크다면 과태료를 감수함(cf. 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저작권 합의 시 강력한 위약벌 조항은 실효성 있는 대안
-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약상 대책 필요
- 과금체계 개선(ex. 선과금, 후다운로드) 방안 등 콘텐츠 가치하락 방지책 필요

2. 기존 유통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 필요

- 유통계약의 다양화, 차별화(선별계약, 가격차등, RS요율 차등) 검토 필요
- 기술보호조치, 신뢰관계, 재정안정성을 고려해 공급대상 선정
- 맞춤형 콘텐츠 공급 등 시장수요변화에 능동적인 콘텐츠 공급 필요

3. 합법콘텐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노력

-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꾸준한 법적 문제제기, 법제도입 요구 등 스스로의 노력 필요
-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단체 간 공조강화
- 청소년 등에 영향력 있는 연예인 등을 통한 지속적 캠페인 필요
- 합리적 가격 책정을 통한 합법콘텐츠 초기 이용활성화
- 시장친화적 정책으로(예, DRM 개방형 콘텐츠정책 등) 합법문화 확산여건 조성



합법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정부(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차원

1. 합법콘텐츠 유통 토대마련을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

- 저작물 DNA 표준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상세화
- OSP와 헤비업로더 간 유착관계에 대한 원천 대책 마련

2. 웹하드 등록제 정착

- 기술보호조치(필터링) 조작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 웹하드 위축 시 풍선효과 대비 필요(토렌트사이트, 폐쇄형 대용량 저장공간 등)
- 저작권법 상 과태료 상향조정(최대 3천만원 → 최대 1억원 이상)

3. 온라인 상 저작물 분할 유통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적 대안 마련

-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에 대한 분할유통 수요 급증(숏클립, 조각영상, 믹스컷 등)
- 현 법제 상 온라인 상 분할유통에 대한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문제제기 가능

4. 해외 저작권 보호강화를 통한 해외 유통 활성화 대책 마련

- 온라인을 통해 전세계로 불법 유통되는 한국 콘텐츠의 공급처는 한국!!!
- Geo-Blocking 상세화, 한국에 서버를 두고 해외로 전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 책임강화,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 저작권의 불모지인 동남아 콘텐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정부, 통상 차원 전략 필요
- 저작권 침해자 권리정보 제공방안 강구(한미 FTA에서도 이와 관련된 근거조항 존재)
- 국제범죄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 강화(범죄인 인도, 금융거래 추적)

합법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온라인 사업자(OSP) 및 이용자 차원

1. 협력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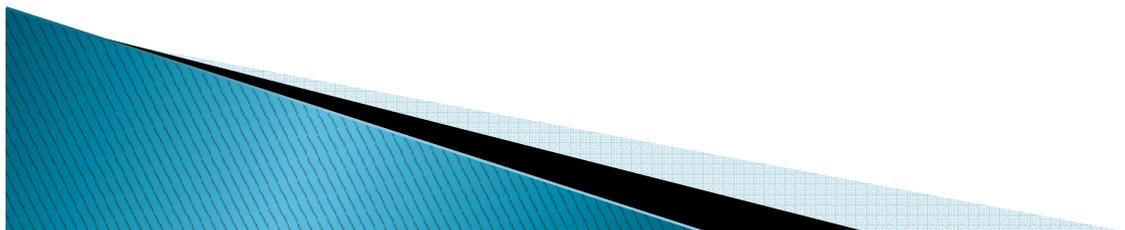
- 불법을 통한 수익창출은 더 이상 불가능 → 저작권자와의 합법비즈니스 모색 불가피
- 저작권자의 콘텐츠 보호를 통해 훌륭한 사업파트너임을 입증해야 함
(성실한 초기 계약이행을 통한 안정적 사업모델 정착)
- 미 무역대표부(USTR) "2010 스페셜 301조 보고서"(10.4.30) : 한국 웹하드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notorious market)

2. 자율적 자정노력 필요

- 사업자 내 구속력 있는 협회 구성, 엄격한 회원사 자격요건 설정
- 업체도산, 회원이관 시 이용자, 저작권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보증보험 등 대안 강구
- 업계 내 협회를 통한 자정노력 및 위반사 자율제제 도입

3. 창작문화 활성화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합법저작물 유통은 결국 저작물수요자의 이익에 부합함
- 온라인에서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이용자 스스로의 노력 필요



감사합니다.

KBS글로벌전략센터

지적재산권부

조지훈

legendary-cho@kbs.co.kr

